光日春秋

8월 아침

김 용 택
시인

일어나자마자 고양이에게 갔다. 고양이가 똥 쌌다. 3일 동안 똥을 싸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안심했다. 부채 들고 날파리 쫓으며 마을 길을 걸었다. 날파리들은 떼로 까맣게 날아들어 눈동자 속을 파고든다. 경기네 집 둘레 벽 등이 훤하다. 불을 켜놓고 출타했나 보다. 집 주위 벽을 살펴보았다. 스위치를 못 찾았다. 논에 벼들이 꽉 차 간다. 볏 잎마다 끝에 이슬이 달려있다. 잘도 자란다. 볏 잎에 거미집들이 하얗다. 벼 논에 거미집들을 보고 안심하였다. 물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 명랑한 물소리도 나를 달래주는 소리다.

할미새가 길에서 날아올라 전깃줄에 앉아 꽁지를 까분다. 비둘기, 참새, 개개비, 꾀꼬리. 파랑새, 직박구리, 돼지빠꿔, 어치, 붉은 머리 오목눈이, 까치, 박새, 물까치는 나의 산책 친구들이다. 호반새는 우리 마을과 먼 산속에서 멀리 운다. 강변 자갈밭으로 걸었다. 큰물이 지나간 자갈밭은 자갈돌들이 물살에 뒹굴고 씻겨 희고 깨끗하다. 자갈들은 밟으면 몸이 뒤뚱거린다. 신경을 써서 몸의 균형을 잡는다.

강 건너 복두 농막에 갔다. 복두, 잔가? 하고 불렀다. 복두가 느리게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안개 속에 서서 이야기하였다. 자두 이야기했다. 아직 덜 익었다고 한다. 내가 경기 집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하자, 여수 놀러 갔단다. 경기에게 바로 전화한다. 내가 벌써 일어났을까? 그랬는데, 경기가 전화를 받는 모양이다. 집 둘레 전등불 스위치는 현관에 있다고 한다. 오늘 온단다. 자두가 익으면 아무 때나 와서 따먹으란다.

복두는 작은 텃밭에 오이, 가지, 고추, 옥수수, 방울토마토, 취나물도 키운다. 잘 자랐다. 복두는 나와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나보다 한 살 아래다. 당숙 아들이다. 당숙은 큰 소나기가 와도 절대 뛰거나 빨리 걷지 않으셨다. 평생 마을 길을 걷는 속도를 변동하지 않고 같은 속도를 유지 하셨다. 밤이면 강 건너 복두 농막에 불빛이 환해서 앞산이 정답다.

참새들이 떼로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흩어진다. 참새들이 떼로 모이는 것은, 그해 새끼들을 다 길렀다는 뜻이다. 새끼들을 데리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다. 참새는 걷지 않고 뛴다. 참새에게서는 어쩐지 문명에 시달린 몸짓이 느껴진다. 참새들이 길가에서 풀씨를 따 먹는다. 풀대들이 작아서 올라가 앉지 못한다. 훌쩍 뛰어 풀씨를 물고 땅으로 내려오면 풀이 휘어진다.

풀을 발로 잡고 풀씨를 따 먹다가 풀을 놓아주면 휘어져 있던 풀들이 벌떡 일어서서 낭창낭창 흔들린다. 흔들리다가 멈추면 참새들은 또 풀쩍 뛰어올라 풀을 잡아당겨 발로 누르고 풀씨를 따 먹는다. 그 일을 반복한다. 강아지풀이다. 즐거운 놀이 같다. 새들은 꺾어질 풀이나 나뭇가지에 앉지 않는다. 철새들은 새끼들을 데리고 멀리 높이 나는 힘을 기른다. 어떤 새는 날다가 공중에 멈춰 발발발 떨고 있다. 웃긴다. 파랑새만 아직, 빼앗은 까치 집에서 새끼를 기르고 있다. 새들은 자세에서 표정이 나온다.

호박꽃이 핀다. 호박꽃은 해가 뜨기 시작하면 꽃을 닫아 버린다. 옥수수는 넘어지고 참깨꽃은 핀다. 강물이 많이 빠졌다. 시멘트 다리 주위에 고기 떼들이 물살을 튕겨 일으키며 논다. 내가 다가가자. 새까맣게 흩어지며 재빠르게 도망간다. 물고기들이 저렇게 떼로 놀다가 흩어지는 것을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 불거지들이 얕은 물 속 자갈밭에서 등을 물 위로 내놓고 정신 없이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땅 위로 훌쩍 뛰어올라 마른 자갈밭에서 훌훌 뛰다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었다. 짝짓기 철이 되면 불거지들의 몸은 화려한 무지개색을 갖추고 뽐낸다. 몸이 울긋불긋 아름다운 '임실 납자루'는 어디로 갔을까.

강변 자갈들이 달빛에 하얗게 빛나던 옛날 일이다. 주황색 조끼에 진초록 슈트를 잘 받쳐 입은 물총새가 잔 고기떼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노리고 돌 위에 앉아 있다. 이웃집에서 재채기 소리가 담을 넘어 크게 들린다. 자연은 이런저런 현상을 통해 해마다 다른 말을 한다. 자연은 꾸준히 자기들의 변화를 강변하고 사람들은 자연의 그 물음에 응하다가 외면하는 일을 반복하며 지구의 일을 크게 키운다.

매미가 울다 그쳤다. 해뜨기 전 우는 매미는 맴맴맴 하고 우는 참매미다. 일찍 일어나 밭도 매고 논도 매라고 맴 맴 맴 운다.

종교칼럼

'킹 오브 킹스'를 통해 본 복음의 역류

최 현 열
광주 온교회 담임목사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흥행 속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세계적 열풍이다. 영화 제목에 걸맞게 영화 속 노래들이 각종 차트에 오르며 그 기세가 식을 줄 모른다. 특히 매일 듣게 되는 '골든'이라는 노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인 가수들이 그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는 영상들이 경쟁하듯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영화 속에 담긴 무속적인 내용이나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현상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 여겨진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 먼저 개봉하여 흥행 기록을 달성했고 최근 한국에서도 개봉한 영화 '킹 오브 킹스(King of Kings)'와 같이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처럼 이 시대의 한국은 한때 외세의 압력으로 닫혔던 문이 열리고 거대한 물줄기를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 강물을 거슬러 우리의 힘과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역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류'의 흐름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 단순히 국력 신장을 넘어 우리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고 고민해야 한다. 조선 후기 선교사들은 닫힌 문을 뚫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다. 외부 문명과 함께 들어온 복음은 수많은 순교의 피와 헌신을 통해 한국에 깊이 뿌리내렸고 한국 기독교는 세계사적 부흥을 경험했다. 이제 한국은 한때 외부의 힘으로 열렸던 그 문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사명의 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다. 과거 복음을 '받았던' 땅에서 이제 복음을 '보내는' 땅으로서의 소명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놀랍게도 복음을 받은 지 한 세기 남짓 만에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는 '복음을 받은 민족'에서 '복음을 보내는 민족'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복음의 역류'라고 부르기에 적절하다. 한때 외부에서 들어온 복음의 물줄기가 이제는 한국을 기점으로 다시금 세계 각지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한국 교회의 선교적 열정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역류'하는 힘은 단순히 잘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한다(마태복음 5:13-16). 우리의 영향력이 세계로 뻗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영향력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가족의 가치, 공동체의 중요성, 인간적인 따뜻함과 같은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력 속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녹아들 때 우리의 '역류'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경제적, 기술적 영향력 또한 약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하며 창조 세계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킹 오브 킹스'의 흥행에서 볼 수 있듯 문화 콘텐츠는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뛰어난 창의력과 파급력을 지닌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복음의 역류'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교훈을 넘어 생명력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문화의 옷을 입고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스며들 때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물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소통하는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깊은 영적 통찰력과 뛰어난 예술적 역량이 요구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고 문화적 언어로 아름답게 승화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문화 선교'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과거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개척했던 그 길이 현재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길을 통해 한국 교회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복음의 역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때이다.

기 고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동반성장의 마중물

김 성 훈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시도 상생 협력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유치한 혁신도시이다. 정주인구 4만명을 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공동혁신도시는 광주전남이 행정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미래가 있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와 나주시는 2023년부터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이 발전기금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미래가 있는 혁신도시로 만들어 가는 한편 혁신도시 개발 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공유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주시가 매년 5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는 발전기금은 혁신도시와 연계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렇게 조성한 혁신도시 발전기금이 마침내 출연되기까지 어렵게 걸어 왔던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혁신도시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된 2006년 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키로 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간 기금의 규모와 사용처, 위원회 구성, 출연 시점 등 입장차로 논의가 오랜 시간 지체됐다.

광주시는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납부한 지방세로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나주시에 요청하였으나 나주시는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보다 훨씬 많아 발전기금의 조성 시점에 대해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도는 3개 지자체가 상생 차원에서 마련한 혁신도시의 발전기금 출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발전기금 조성의 쟁점인 출연액, 기금 운용방식,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활용사업 등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 개최, 발전기금 조성 용역 및 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협의 과정을 거쳤다

마침내 2022년도에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나주시가 2023년에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원을 첫 출연하였고 출연한 기금의 55%는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 시군구에 투자하고 나머지 45%는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발전기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첫 번째로 조성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발전기금의 조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차별성이 알려지면서 특히 거점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가 낙후된 지자체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식 도입 등 발전기금 운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 타 혁신도시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2027년까지 250억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 등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발전기금은 시도민의 상생발전 의지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혁신도시를 지역거점으로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신규 인구 유입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전국 혁신도시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인근 지자체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거점도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가자.

社 說

'RE100산단 최적지 전남' 확인한 에너지 포럼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분권 전략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이 재생에너지 메카인 전남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광주일보와 전남도·신안군이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주최자로 참여해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한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를 선도하려는 전남의 혁신 전략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관심을 반영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 하면 서울로 연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에너지고속도로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촘촘하게 까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남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형 에너지고속도로에 힘을 실어 줬다.

포럼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전남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산단의 최적지이자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 벨트의 핵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여기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김 지사는 RE100 산단과 관련 기업을 유치해 서남권에 50만명이 거주하는 미래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민에게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여송 광주일보 회장은 호남이 에너지 분권시대를 맞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하기를 기원한다며 힘을 보탰다. 전남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포럼에서 형성된 이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남이 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과실을 누릴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관세협상 선방했지만 피해 업종에는 지원을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주력 업종의 희비가 엇갈렸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막은 것은 '농도 전남'에는 희망적인 결과다. 협상 타결 전까지는 쌀과 30개월령 소고기 수입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는데 정부가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아 얻은 결과로 지역 농·축산 농가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계 4위 규모의 HD현대삼호중공업을 보유한 전남의 조선업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산업 전용 펀드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업이 미국을 비롯한 북미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은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줄였지만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같이 15%를 적용받게 되지만 무관세를 적용받던 우리 입장에선 2%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과의 향후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기아자동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보유한 자동차 도시 광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철강에 50% 관세율이 부과돼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전에 비해 광양국가산단 철강기업의 생산(13.4%)과 수출(10.3%), 고용(2.3%)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맞는 고율 관세라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정부는 관세협상의 득실을 나눠 갖는다는 자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정부도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선택과 집중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가 되면 '총칼 활'의 민족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독주를 막기 위해 경기 룰도 바꿔보고 애를 써도 결국 양궁 금메달은 한국 차지다.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도 여자 양궁 대표팀은 단체전 10연패 대위업을 달성했다. 사격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지난 올림픽에서 한국은 3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을 쐈다. 펜싱도 이제는 낯설고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 오상욱이 파리올림픽에서 첫 금메달 소식을 전한데 이어 단체전까지 석권해 2관왕에 올랐다.

양궁, 사격, 펜싱은 말 그대로 '효자 종목'이다. 반면 육상은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불모지로 꼽힌다. 도약 종목에서 눈길 끄는 도전들은 있었다. 멀리뛰기·세단뛰기의 김덕현에 이어 우상혁이 높이뛰기에서 새 역사를 위해 부지런히 뛰고 있다.

물론 올림픽하면 우선 떠오르는 '육상' 금메달이 있기는 하다. 황영조가 결승선으로 가기 위해 경기장 트랙에 들어서던 순간은 소름 돋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얼마 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질주가 있었다. 무대는 제32회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로 흔히 말하는 U대회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하면 관심을 받는 대회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화제가 된 장면이 있다. 한국 남자 육상 400m 계주팀의 결승전이었다. '맏형'인 광주시청 이재성과 함께 서민준, 나마디 조엘진, 김정윤은 남아공을 따돌리고 대회 역사상 첫 계주 종목 금메달 역사를 썼다.

선수들의 체격도 커졌고 과학이 접목되면서 기술도 향상돼 전력 평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육상은 여전히 높은 벽이자 정체된 종목처럼 보인다. 육상 종목 한국신기록을 보면 1990년대에 작성된 기록도 있고,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400m 계주팀은 올해만 벌써 세 번이나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개인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릴레이로 극복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통한 것이다. 결국 관심과 투자가 결실로 이어진다. 계주팀이 만든 바람을 육상 전반적인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균형과 넓은 시야도 필요하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